

등록금심의위원회 제4차 회의록

1 일 시 : 2017.12.22.(금) 10:30~12:00

2 장 소 : 율곡관 제1회의실

3 참석위원 : 김민구, 윤호섭, 김대중, 김주용, 김천호, 이성호, 박수빈, 오설빈, 김경희, 윤재필

불참위원 : 정소영

4. 회의내용

- 김민구 위원장이 성원이 되어 개회를 선언하다
- 위원장이 3차 회의록을 위원들에게 검토를 요청하다
- 위원들은 수정사항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후 김민구 위원장이 최종 회의록 내용을 확정하다
- 위원장이 보고 안건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다
- 간사는 수정된 2018학년도 본예산 수입 대비 지출 불일치에 대한 처리 방(안)에 대해서 설명하다
- 학생위원이 국가장학 유형2와 등록금 동결 연계에 대한 2018학년도 교육부 정책에 대해 문의하다
- 간사는 교육부에서 이와 관련해서 아직 공식적인 공문이 접수된 것이 없으며, 작년 기준으로는 1월 초에 공문이 접수될 것으로 예측되고, 교육부에 최대한 빠른 공문 송부를 요청하였음을 답변하다
- 위원장이 과거 상황들을 보면 국가장학 유형2와 등록금 동결은 연동 할 가능성이 높아 등록금을 인상하지 못할 가능성이 많지만, 그에 따른 학교 재정 건전성 악화를 초래하여 문제가 많음을 지적하다
- 학생위원이 재정지출을 절감하는 것보다 국고유치 등의 비등록금 재정 수입의 다각화가 필요하며, 이에 대한 학교의 계획을 문의하다
- 간사는 작년보다 기부금을 유치하기 위해 약 3억을 증액하였고, 국가재정지원 예산은 교육목적 이외 다른 용도로 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학교 재정 건전성 제고에 큰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없지만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하여 적극 유치하고 있다고 답변하다 그리고 ACE 국고사업 유치를

위해 연구비를 편성하였고 교육부대 수입 증대에도 노력하고 있다고 말하다

- 교직원위원회가 2018학년도 기부금 수입 규모에 대해 문의하다
- 간사는 2018학년도 기부금은 본교, 의대 포함하여 54억으로 편성되었음을 답변하다
- 전문가위원회가 교비에서 의무적으로 장학금을 사용해야 하는 규모가 정해져 있는지 문의하다
- 간사는 등록금 수입의 10%를 의무적으로 학비 감면 하여야 하며 우리학교는 현재 약 13%를 감면 하고 있다고 답변하다
- 전문가위원회가 단과대학 배분예산에 대해서 문의하다
- 간사는 각 단과대학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예산이며, 학장이 운영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답변하다
- 위원장이 학교의 교육비 환원율에 대해서 문의하다
- 간사는 2016년 결산 기준 약 250%라고 답변하다
- 학생위원회가 ACE 사업의 규모에 대해서 문의하다
- 간사는 15~20억 정도라고 예측되며 아직 공식적인 공지가 없으며, ACE 사업을 유치한다면 교양교육 및 전공 교육의 질 제고에 투입해야 한다고 답변하다
- 간사는 대학기본역량진단에 의한 정부재정지원 사업이 2019년에 있을 예정이며, 우리학교도 상위 60%이내 수준으로 평가를 받는다면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한다고 답변하다
- 위원장은 대학기본역량진단에 의한 정부재정지원 규모는 기존 국고재정지원 규모와 비슷하지만 지출 목적을 제한하지 않기 때문에 학교 재정에 다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하다
- 위원장이 보고안건에 대한 추가 질문이 없음을 확인하다

[심의 안건 1호 : 2018학년도 등록금 책정(안)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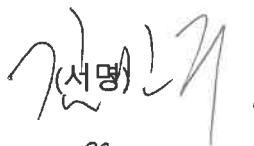
- 위원장은 간사에게 심의안건 1호 「2018학년도 등록금 책정(안)」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다
- 간사는 「2018학년도 등록금 책정(안)」 학부 입학금 16%인하, 수업료 1.8%인상, 일반대학원 입학금 동결, 수업료 1.8%인상, 전문대학원과 특수대학원 수업료 인상에 대해서 설명하다
- 전문가위원회가 특수대학원의 수업료 책정에 대한 의사결정 절차에 대해 문의하다

- 간사는 특수대학원 중 비책임운영부서는 법률에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책정하며, 책임운영부서 특수대학원은 각 대학원의 원장 책임 하에 운영위원회를 거쳐 제청 있다고 답변하다
- 위원장은 책임운영부서가 학교에 O/H 30%를 부담하고, 그 외 수익은 책임운영부서의 발전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, 학교의 재정이 악화되어 O/H 이외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고 말하다
- 학생위원은 학교 재정이 어려움에는 공감하고 있으나, 비등록금 재원 확충에 학교가 노력해 주시기를 요청하며 등록금은 동결하기를 바란다고 말하다
- 전문가위원이 국가장학 유형2 지원 조건으로 등록금 동결이 권고사항인지 문의하다
- 간사는 권고사항이긴 하지만 등록금을 인상하는 경우 국가장학 유형2 지원을 받을 수 없음을 답변하다
- 전문가위원이 강제 권고사항인 것 같다고 말하다 그리고 등록금을 인상한다면 학생들 입장에선 등록금 부담도 되고, 국가장학금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반대 할 수 밖에 없어서 조건부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다
- 위원장은 최종적으로 제1호 안건에 대해 학부 입학금은 16%인하, 수업료는 1.8% 인상, 일반대학원 입학금은 동결, 수업료는 1.8% 인상(안)에 대해 투표를 실시하다
- 위원장은 제1호 안건에 대한 투표 결과 찬성 6명, 반대 4명으로 본 안건에 대해 가결하였음을 설명하다. 단, 학부 수업료 인상을 1.8%는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국가장학유형2 및 정부재정지원사업에 등록금 인상여부 제한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준에 따라 등록금을 동결할 수 있다고 정하다
- 위원장은 특수대학원 및 전문대학원의 등록금은 참석위원들의 전체 동의를 얻어 요구한 원안대로 인상을 확정하다
- 김민구 위원장은 등록금인상분에 대해 교육직접사업비로 사용하도록 요구하면서, 제1호 안건 「2018학년도 등록금 책정(안)」을 원안과 같이 심의.의결함을 공포하다
- 김민구 위원장은 추가 질문이 없음을 확인하고 등록금심의위원회 4차 회의 폐회를 선언하다

2017. 12. 22.(금)

등록금심의위원회

위원장 김민구


(서명)

위원 오설빈


~~(서명)~~

위원 윤호섭


(서명)

위원 김경희


~~(서명)~~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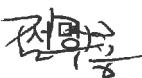
위원 김대중


(서명)

위원 김천호


~~(서명)~~

위원 김주용


~~(서명)~~

위원 윤재필


~~(서명)~~

위원 이성호


~~(서명)~~

위원 정소영

(서명)

위원 박수빈


~~(서명)~~